

사회

# 아파트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 어제 광주 북구 연제동서 ... 30대 가장이 살해 후 자살한 듯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5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연제동 모 아파트에서 A(32)씨와 A씨의 부인(35), 아들(4), 딸(2)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A씨의 여동생(3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여동생은 경찰에서 "오빠를 만나려고 집에 왔는데 오빠 부부와 조카들이 모두 안방에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부인과 자식 등 3명은 목 등에 예리한 흉기로 베인 자국과 혈흔이 있었으며, 침대 아래에 나란히 누운 상태였다.

또 A씨는 안방 문턱에 걸쳐 엎드린 채 숨져있는 것을 A씨의 여동생(3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여동생은 경찰에서 "오빠를 만나려고 집에 왔는데 오빠 부부와 조카들이 모두 안방에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흥기는 가족의 옆에 놓여있었다. 회사원이던 A씨는 실직 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정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던 그는 우울증 증세를 보여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걱정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에 가보니 일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피를 흘린 채 안방에서 한꺼번에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A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는 등 괴로웠다는 주변의 진술을 따라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파트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A씨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는 등 괴로웠다는 주변의 진술을 따라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12일 오후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광주시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보해저축銀 대표 체포

## 광주지검, 수천억 불법·부실대출 혐의 영장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2일 수천억원의 불법·부실대출 혐의로 지명수배된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체포했다. 김호경은 이 은행의 대표이사인 박정호를 체포했다.

김호경은 최근 수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남 자정계 강원도 설악산 인근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김호경은 오 대표를 상대로 불법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규모, 그룹 대주주와 연관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은 곧 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목포 본점과 서울 사무소, 오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은행의 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차주 대출한도나 거액 신용공여 합의액 기준을 넘겨 이른바 '조끼' 등의 형태로 대출한 금액이 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은행은 또 부실 담보 등을 통해 2000억원 가량을 대출했으며, 규정을 어기고 서울에 본소나 사무소를 차려 놓고 대출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징벌 등록금 폐지, 사퇴는 안해"

## 서남표 KAIST 총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남표 총장은 12일 최근 잇따른 학내 자살 사태의 배경으로 지적된 '징벌적 등록금제'와 관련, "최근 학생들에게 예기한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총장은 "지금까지 학사 운영이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칠 부분은 고칠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정신상담을 강화하고 '100% 영어수업'도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목숨을 끊은 사태는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며 서 총장을 질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서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여러 지적 사항을 수용해 개선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600여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을 넘겼는데도 연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 최형식 담양군수 불기소 될 듯

## 광주동부경찰, 수뢰 증거 부족 ... 검찰 송치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최형식 담양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옥건설 사업과 관련해 최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건설업자 정모(49)씨의 주장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2005년 7월 20일 정모에게 담양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비서진 등 5명이 보는 가운데 렌선사

업 권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군수에게 5000만원이 든 사과장자를 줬다'는 정씨의 진술에 따라 최 군수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업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최 군수는 '사법 귀정'이라며 경찰 수사를 비난했다.

최 군수는 "단체장을 소환하려면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경찰은 생사람을 잡는 데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무고한 사람을 모략하는 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징역 10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민간인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훈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과

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중훈 전 KB한마을 대표가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해악을 고지하고 국민은행장의 거취 등을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해 보유 자문을 양도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나원침 (8291) 김종두



# 친구들과 짜고...

## 빌린돈 250만원

## 값은 뒤 날치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친구들과 짜고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값은 뒤 이를 날치기한 남모(25)씨 등 3명을 구속할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월 21일 밤 9시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 A 빌라 앞길에서 B(여·29)씨에게 한 달 전 빌린 현금 250만원을 값은 뒤 김씨가 돈다발을 손가방에 넣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이를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평소 B씨의 건강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주차장에 침 뱉지마" 고교생 뺨 때려

##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침 뱉는 10대 고교생 2명을 훈계하던 중 이들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모(51)씨는 12일 새벽 1시20분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주 모 고교 2년 김모(16)·박모(16)군 등 2명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주차장을 지난년 중 고교생들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나무라던 중 대들자 뺨을 때렸는데, 경찰에서 "학생들의 태도가 건방져 침을 수 없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함평군 폭설피해 복구비 수천만원 엉뚱한 공무원·농가에 줬다

함평군이 폭설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무너진 농가에 지급하는 '폭설피해 시설물 복구비' 가운데 수천만원을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나 농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지원 대상인 일부 농가에 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폭설피해 복구비와 관련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겨울 폭설(2010년 12월 29일~2011년 1월 1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총 3억9550만원(국비 70%·지방비 30%)을 피해 규모에 따라 137개 농가에 나눠 최근 지급했다.

복구비 지원 대상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1개 농가 기준으로 피해 면적이 약 330㎡(약 100평)이상인 경우다. 피해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농립수산식품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농·어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세대주나 가족

이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주 생계수단이 있을 경우 역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식품부 지침 어겨 지원 대상자 빠지고 피해 면적도 부풀려 총체적 재점검 필요

그러나 광주일보가 이날 입수한 함평군의 복구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00만원 가량의 복구비가 대상이 아닌 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가들은 폭설 피해를 보기는 했으나 작업이 공무원이거나 뚜렷한 생계수단이 있어 복구비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자신의 비닐하우스 352㎡가 폭설로 주저앉아 신고한 함평군청 소속

직원 A씨의 경우 공무원인 까닭에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15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 연 평균 매출이 2000만원 가량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가 약 6600㎡(약 2000평) 가량의 땅까지 있는 주민 B씨도 1100만원을 지급받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형 마트를 운영중인 C씨도 400만원을, 주유소를 운영하는 D씨도 15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폭설 피해 면적이 부풀려져 지원된 사례도 있었다. 주민 E씨의 경우 비닐하우스 280㎡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적용돼 100만원을 받았다. E씨는 실제 피해 면적이 7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서류상 피해도 330㎡ 이하로 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가 복구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상자 아닌 농가에 지급된 복구비는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은희 기자 hwang@

# 경찰관 비위행위 절반이 음주운전

올해 적발된 우리나라 경찰관의 전체 비위 행위 가운데 음주운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 감사관실이 집계한 올해 1월1일~4월12일 경찰의 주요 9가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55건 중 31건(56.4%)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경찰관 음주운전 24건보다 7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수는 서울청에서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포함해 경기청, 대전청 등 6개 청에서 증가했다.

음주운전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위와 경사가 각각 32.3%로 가장 많고 이어 경장 19.4%, 순경 9.7%, 경정과 경감 각각 3.2% 등의 순이다. 주요 의무위반 행위 전체에서 음주운전에 이어 폭력(8건), 피의자 관리소홀(5건), 도박(4건), 성폭력(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b>9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수산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제공	<b>9급 문제풀이</b>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b>법원/경찰직</b>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b>9급 야간반</b>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특강반	<b>농업직/기술직</b>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b>명품 "강력단과"</b> 영·연·국·지방·행정·국·연·한·화·재·경·재·교·학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b>합격 소망직 (전문)</b>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제공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